



2023년 3월 제2호

월간 KOCHAM

월간 KOCHAM 정보

발행처 브라질 한국상공회의소 (KOCHAM)

발행인 김승주 회장

편집인 KOCHAM 사무국

발행일 2023년 3월 7일

홈페이지 kochambr.com

이메일 info@kochambr.com

주소 Alameda Santos 700, Andar 8, Cerqueira Cesar, São Paulo, SP,
CEP: 01418-100

목차

1. 코참 활동
2. 신규 회원사
3. 회원사 탐방
4. 공관 및 교민 소식

코참 활동

신규 회원사
회원사 탐방
공관 및 교민 소식

코참 활동

운영위원회 개최

코참 운영위원회가 2월 1일(수)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화상회의를 통해 개최되었다.

김승주 코참 회장을 비롯해 배준석, 김수한 부회장, 이병림 의료제약 분과 위원장, 최태훈 고문이 참석, 상반기 행사 개최 일정과 신규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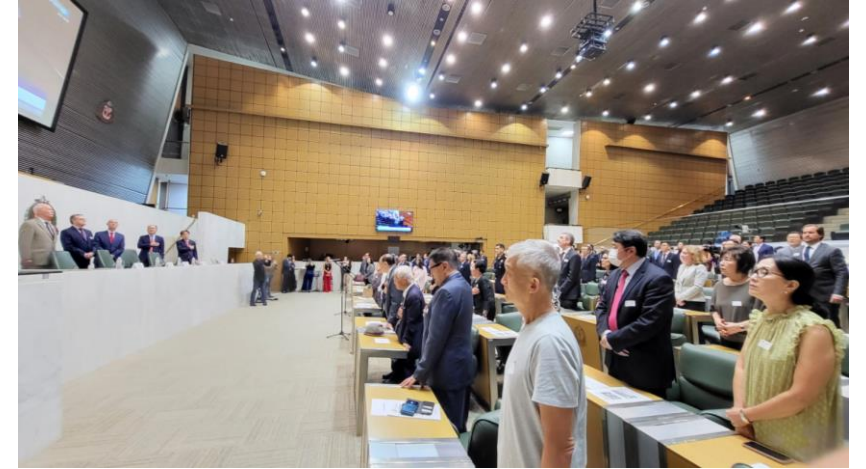
주요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정기총회 개최 : 4월 27일(목)
2. 코참 골프대회 : 5월중에 개최 (한인주요단체장 초청)
3. 월간 KOCHAM : 2월 창간호로 개시
4. 브라질 생활가이드 : 외주 제작 검토

기타 임원 동정

- 2월 24일 주요 단체장 회의 (김수한 코참 부회장 참석)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 기념식 참석



김승주 코참 회장은 2월13일(월) 오전, 상파울루 주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한인 이민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상 총영사 및 권명호 한인회장을 비롯한 주요 한인 단체장들과 빠울로 피오릴로(Paulo Fiorilo) 주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 자나이나 빠스꼬알(Janaina Paschoal) 상파울루주 의원을 비롯해 브라질 정계, 외교, 치안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다. (출처: 한인투데이)

신규 회원사 (2월, 재가입)

DEMAREST

DEMAREST

담당자 김민곤 변호사
업종 법무법인
소재지 São Paulo, 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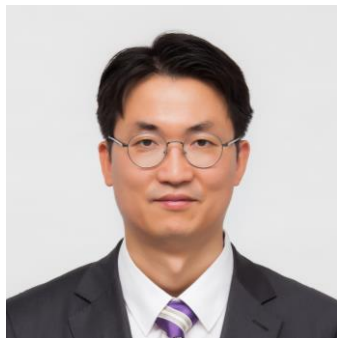
STORYVENT



대표명 김주희 대표
업종 프로덕션
소재지 São Paulo, SP

회원사 탐방

현대 오토에버 배준석 법인장



1. 회사 소개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Leading client success through smart digital transformation", Hyundai AutoEver Brazil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의 브라질 진출에 발맞춰, 10년이 넘도록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최적의 IT서비스를 제공해 온 한국과 브라질 IT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서버/네트워크/보안 등 인프라 부문과 완성차 MES/ERP, CRM, 나아가 블루링크와 같은 CCS(Connected Car service)를 제공하고 있고, 고품질의 비용효율적 서비스를 위해 보안/인프라자원/시스템의 구독모델 등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HAEB는 고객과 함께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고객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IT관점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브라질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그것을 극복한 사례가 있을까요?

팬데믹 이후, 홈오피스가 정착이 되며, 이를 가능케 하는 IT인력의 수요가 높아질 뿐 아니라, 피라시카바라는 지역의 한계를 넘어 상파울루나 리우 또는 포르투갈 등과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며, IT인건비가 급등하고 우수 인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브라질 IT 시장에 맞는 급여체계, 홈오피스 정책 등을 발 빠르게 도입하고, 회사의 비전과 성장전략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가르치며 배우는 문화를 정착시키며 분야별 IT전문지식과 로열티를 갖춘 10년 이상 된 인력이 약 20%에 이르는 건실한 회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3. 올해 특별히 계획하시는 사업이 있나요?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Shared, Cloud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고객의 외연을 넓히는 노력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동일한 서비스를 한데 모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많은 고객이 참여할수록 서비스의 품질은 좋아지고 비용은 저렴해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꾸준히 만들고자 합니다. '10년 동안 그룹계열사 중심으로 IT서비스를 제공하며, 브라질 시장에 대해 이해하고, 각 분야의 IT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다지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한국식 IT방법론과 브라질 최적화된 IT기술)으로 고객의 외연을 넓히는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4. 코참에 대한 기대나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요?

분야별 브라질 현지 기업과의 미팅, 지식공유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한국의 기업이 브라질에 기여하고, 브라질의 기업이 한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가는 코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참 활동
신규 회원사
회원사 탐방
현대 오토에버
DEMAREST
공관 및 교민 소식

회원사 탐방

DEMAREST 김민곤 변호사



1. 회사 소개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Demarest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77명의 파트너 변호사와 300명 이상의 변호사, 그리고 220명 이상의 법률 및 행정 업무 인력을 바탕으로 법률 전분야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이며, 2022년 TTR (Legal Advisors Ranking - 전 세계 모든 지역의 M&A 움직임을 추적하는 플랫폼) 보고서에 따르면, Demarest는 대형 법률 자문 업체 랭킹에서 이전보다 순위가 상승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Demarest는 1,500개 이상의 고객을 보유중이며, Fortune 500대 기업의 15%와 브라질 대기업 및 그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시장 진출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언어 및 문화적 장벽 극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국 데스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데스크팀 변호사들은

브라질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을 도운 경험에 기반해 고객사의 브라질 진출 또는 브라질 내 사업 확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올해 브라질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요?

올해의 어려운 점 중 하나는 경제적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이는 주로 기업법 영역 (비즈니스 개발, 기업인수합병, 인프라 등과 관련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 주체들이 투자를 재개하도록 빠르게 신뢰를 전달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인플레이션 통제, 공공 지출, 이자율은 투자 증대와 이에 따른 인수 합병 증가 속도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유지된다면, 기업인수합병이 약 20% 감소한 2022년과 같은 침체 기간을 또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어려운 점은 원격 근무입니다. 최근 하이브리드 모델이 확립되면서, 가상 환경 내에서의 업무 효율 유지, 기업 문화 강조, 직원 간의 협력 유지, 원격 근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Service Desk팀이 사용하는 도구 및 프로세스 측면에서 다양한 도전이 제기되었습니다.

3. 올해 특별히 계획하시는 사업이 있나요?

기업법/M&A 분야, 사회기반시설 및 광업(천연 자원) 분야, 세무 분야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업무도구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이나 인종에 따른 차별 반대와 소수자 보호,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지원, 법률 교육 지원 등의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관 및 교민 소식

브라질한인회, 정기총회 개최



브라질한인회(회장 권명호. 이하 한인회)가 2023 정기총회를 지난 31일(화)에 개최하고 예산안 등의 상정안 모두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인회측은 최종 참석자를 확인한 결과 총 101명(위임장 34명, 현장참석 6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한인회는 작년 한해 동안 총 328.328헤알의 수입을 거두었고, 12월 31일까지 총 47.828.61헤알의 잔고가 남아있다고 발표했다.

올해 한인회 예산규모는 총 54만 헤알이 책정되었으며, 총회 마지막으로 논의된 한인회관 매각안건에 대해서 권 회장은 “구입을 희망해 온 A건설사와 7백만헤알 규모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되며 진행되고는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 진행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잠시 보류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출처: 한인투데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식품 홍보전 개최



카니발 기간인 2월 17일(금)부터 22일(수)까지 상파울루 파울리스타 대로에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주관으로 대규모 한국식품 홍보 행사가 열렸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측은 행사장에 다양한 맛의 소주, 막걸리 등의 한국 주류와 현지에서 인기 많은 스낵류를 시식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했다. (출처: 한인투데이)



공관 및 교민 소식

동네 한 바퀴, 브라질 편 방송



한국시각으로 지난 4일 KBS 1TV '동네 한 바퀴' 한인타운 편이 방송되었다. 이 날 첫 방송에서는 이만기 씨가 상파울루의 한인타운 봉혜피로를 찾은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만기 씨는 청사초롱이 내걸린 봉혜피로 거리를 거닐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채상범 씨는 50여년 전 부모님을 도와 가내 수공업으로 시작해 현재는 두 아들 부부와 함께 수십명의 현지 직원을 고용하고 자동차 설비를 갖춘 의류 브랜드의 CEO가 된 사업가다. 이어 푸드 트럭에서 한국식 핫도그 판매를 시작해 현재는 매장을 운영 중인 한인 청년 최윤재 씨도 만났다.

한편, 공원을 거닐던 이만기 씨는 '가고파'를 부르고 있는 한인어머니 합창단원들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 세대를 응원하는 그들의 메시지도 전했다. (출처: 한인투데이)

이민 60주년 기념 '한복 퍼레이드' 개최



상파울루 지역 카니발 행사로 인한 차량 통제로 연기된 이민 60주년 기념 '한복 퍼레이드'가 3월 12일(일)에 열린다.

브라질 한인 문화예술연합회(회장 이화영)와 한국문화원(원장 김완국) 공동 주최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1963년 당시 네덜란드 선박 치차렌카(Tjitjalenka)호를 타고 브라질 산토스(Santos)항에 도착했던 103명의 한인 이민자를 상징하는 사전신청을 통해 선발된 총

103명의 자원봉사자가 한복 퍼레이드에 참여하여 브라질의 대표적 문화중심지인 빠울리스타 대로에서는 최초로 야외 한복행렬이 진행되게 된다.

'한복 퍼레이드'는 12일 오후 1시 30분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2시에 문화원 앞에서 한복퍼레이드가 출발하여 MASP(상파울로미술관) 앞까지 이동한 뒤 다시 문화원 앞으로 돌아오는 약 1시간 가량의 행렬이 될 예정이다. (출처: 좋은아침)